



고창군이 지역의 특색 있는 농촌, 문화, 생태, 관광 자원들을 연결해 도농 상생의 장 마련을 위해 '팜팜스테이션사업'의 일환으로 '고창 다섯꺼리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고창 다섯꺼리 아카데미 운영

먹고·보고·즐기고·사고·자는 교육... 셋째 주 토요일 오후 7시 부터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지역의 특색 있는 농촌, 문화, 생태, 관광 자원들을 연결해 도농 상생의 장 마련을 위해 '팜팜스테이션사업'의 일환으로 '고창 다섯꺼리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군은 지난 18일 고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박우정 군수와 군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먹고, 보고, 즐기고, 사고, 자는 다섯 가지의 꺼리별 교육을 통해 다양한 문화 관광자원 발굴을 목적으로 고창 '다섯꺼리 아카데미' 입교식을 개최했다.

다섯꺼리 교육은 앞으로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오후 7시부터 12시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며, 각 꺼리별 전문 지도교수를 지정, 심화교육을 통한 팜팜 인증농가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교육이 마무리되는 11월에는 전국단위의 지식농업 페스티벌을 개최해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과 독창적인 농업기술 보급, 농업혁신으로 고창군이 지식농업의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창 다섯꺼리 아카데미는 융·복합 농촌관광 모델개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창조지역사업 천년의 보물찾기 팜팜스테이션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 관광산업 인프라를 구축, 표준화, 체계화, 네트워크화를 통해 팜팜스테이션 사업의 주민주도형 팜팜농가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우정 군수는 "고창군은 천혜의 자연조건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먹거리와 다양한 문화 관광자원, 유네스코 자연문화 유산이 있는 곳"이라며 "다섯꺼리 교육을 통해 이러한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과 지역자원을 보다 적극 발굴해 고창군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아로니아·꾸지뽕, 만성질환 개선에 탁월

순창장수연구소, 아토피 피부염 등에 효과적인 식품 개발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표 농산물인 아로니아, 꾸지뽕 등이 만성질환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이를 활용한 건강식품 개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는 최근 '순창 농산물을 이용한 기능성식품소재 개발 및 고부가가치 제품화 연구' 결과 발표회를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참여대학 연구진 및 기업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여

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지역 농산물의 향당도, 아토피 피부염, 위장보호 효능 등 기초연구 결과와 이를 활용한 개발한 건강식품이 선보였다.

이번 연구결과 순창산 아로니아의 아토피 피부염 동물실험 결과 아토피 피부염이 약 50%정도 억제된 것으로 보고됐다. 또 위장염증 감소와 동물의 혈당수치도 감소도 확인됐다고 연구소 측은 밝히고 있다.

이를 활용한 건강식품 시제품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가칭 '기운청'으로 이름 붙여진 음료수는 오미자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해 만들었으며 향당도 효능과 감증해소 효능을 갖고 있다.

향후 당뇨환자 맞춤형 음료수로 시장 가능성을 열었다는데서 참여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는 2월 말경 음료수 개발이 완료되면 소비자 선호도 조사 등을 실시한 후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연구를 토대로 다양한 건강식품을 개발하고 지역농산물을 연계해 농가소득향상과도 연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순창=이영철 기자

20년만에 새로운 임실군지 나온다

군, 역사·문화·정치·사회·산업 등 집필

임실군은 '제1차 임실군지편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1997년 이후 20년만에 새롭게 임실군지(任實郡誌)를 간행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오는 2018년까지 '원고 집필 사업'과 '편찬 간행 사업'으로 나눠 올해는 역사·문화, 정치·사회, 산업·경제, 교육·복지·체육 분야 원고 집필사업을 진행했다.

지난 17일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심민 군수를 비롯해 사회단체, 지역대학 교수, 읍·면장 추천 지역 대표 등 20여명이 참여한 편찬위원회는 이같이 합의했다.

또한 위원장으로 최성미 임실문화원장, 부위원장으로 전경미 예원예술대학교수를 확정하고 공고를 통해 집필 위탁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심민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그

간의 임실 역사와 문화를 오롯이 담아내고 과거 20년간의 놀라운 발전상을 분야별로 담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이어 "군민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미래 100년의 임실 비전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남재 문화관광치즈과장은 "지난 1997년 간행된 이후 20년 만에 진행되는 편찬사업인 만큼 내실 있는 사업추진에 노력하겠다"며 "군민의 삶을 반영하고 있는 생활 관련 사진자료, 새마을 운동 자료, 선대 어르신들의 문집이나 지역내 고문서 등의 제보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보 및 관련 사항 문의는 문화관광치즈과(☎640-2315)로 하면 된다. /임실=진흥영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역점·국가공모사업 논의

임실군이 올해 역점사업과 향후 국가공모사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심민 군수는 20일 운암면사무소에서 실과장 및 읍면장 연석 확대간담회를 갖고 군정 주요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동참과 협업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심 군수는 2018년과 2019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현황과 중앙공모사업 대응계획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읍면별 현안사항에 대한 쟁점 토론과 대안을 논의했다.

집중 논의된 내용은 최근 실과원소별로 5차례에 걸쳐 발굴된 △태조희망의 숲 조성, △발전추진형 지역개발사업,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37개 사업에 3,265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이다.

또한 임실N치즈 6차산업과 지구 조성 사업과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사업, 전통시장 현대화 및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등 15개 사업에 대한 시기별, 쟁점별 공모사업 대응방안 등도 함께 논의됐다.

이외에도 보훈교부세 확보방안과 임실봉황인재학당 운영 홍보계획을 비롯한 마을세무사 확대운영 등 부서별 신규시책과 읍면에서 올해 집중 추진할 특수시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임실=진흥영 기자

순창군, 청년들 대상 희망 창업 실태조사 추진

순창군이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관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희망 창업 업종 및 관련 전문교육 프로그램 수요 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심화되는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고자 추진되며 지역현실에 맞게 만 20~3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군은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지역 청년들이 원하는 맞춤형 전문 교육 및 자격증 취득 등 일자리 맞춤형 청년 양성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조사이외에도 청년인구

감소 및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순창군 청년기본조례, 청년고용 및 미취업 실태조사 등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조사된 통계를 보면 2016년 만20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층 인구가 5,048명으로 17.2%의 구성비를 나타냈으며, 이는 10년 전인 2006년 7,777명(23.9%)에 비해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이는 고령화와 맞물려 지역경제 성장 둔화와 도시 존속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순창=이영철 기자

농협 남원지부, 농촌현장체험 교육

농협 남원지부(지부장 심민섭)에서는 농촌 현장체험을 통한 농심마인드 제고를 위해 16년 하반기 범농협 신규직원 4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31일부터 3월 24일까지 '농촌현장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 해 처음 실시되고 있는 범농협 신규직원 '농촌 현장체험' 교육은 농협직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농촌과 농업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상 분석과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여 농업의 이념인 '농업인이 행복하면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교육'이다.

신규직원들은 8주간의 교육기간 동안 농촌 일손돕기와 농업 경제사업장, 산물 가공공장, 지자체, 농업인단체 등에서 현장체험을 실시하게 되고, 특히 지난 2월 7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산내면 소재 농가에서 사과나무 가지치기 작업과 주생면 소재 농가에서 딸기 수확 작업 등을 실시하여 부족한 농촌일손에 보탬이 되었다.

/남원=유영철 기자

이흥재 남원소방서장, 대형화재 취약대상 지도방문

이흥재 남원소방서장은 이날 17일부터 관내 대형화재 취약대상들을 직접 찾은 현장방문행정 및 CEO안전통화제(소방서장이 직접 화재 취약대상의 CEO와 정기적으로 통화하여 최적의 안전환경을 조성하는 것) 등 화재예방을 위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소방행정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번 현장지도방문을 통하여 대형화재취약대상들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전반을 확인하고 최근 발생한 대형화재 및 화재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상물 관계자들의 소방

안전관리 능력 향상과 자율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세부 추진사항은 자위소방대의 화재 초기 대응체계와 소방관련업무 지도, 소방시설과 피난시설 등의 유지관리 당부, 소방관계법령 안내 등이다.

이흥재 남원소방서장은 "이번 방문을 통하여 관계자들의 화재예방의식 함양과 자체 초기대응력 확보,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철저로 대형재난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구독문의 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역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